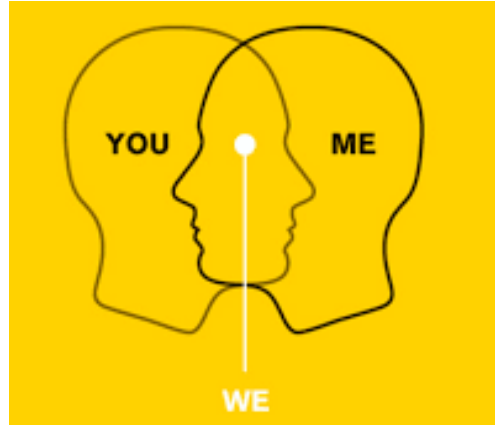


## 공감 능력 (막 2:23-28)

철수와 영희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지 1년된 기념으로 분위기가 좋은 레스토랑에서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영희가 화장실에 간 사이, 우연히 마주친 철수의 전 여자친구가 다가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철수는 그녀를 보내려 했지만, 그녀는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쏟아내고 사라졌습니다. 영희는 저녁식사를 방해 받은 일에 그리고 철수에게 화가 났습니다. 이 때 철수는 가장 먼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 1) 화났지? 당연히 그럴 거야. 나도 너무 화가 나.
- 2)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개가 그냥 앉더니 말하기 시작했어.
- 3) 날 못 잊었나? 나랑 다시 잘해보고 싶은 것 같아.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 ) 반응을 보입니다. 그것은 자기 잘못은 없기 때문에 자신을 옹호합니다. 하지만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의 경우 ( )의 반응을 보입니다.

리더에게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랫사람의 감정을 잘 헤아릴 수 있는 리더가 [좋은 리더]입니다. 실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일수록 타인의 감정을 파악하는 능력이 부족해진다고 합니다. 심리학 연구에서 참가자들에게 짝을 짓고, 과거에 괴롭고 어려웠던 이야기를 나눠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높은 권력과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상대의 고통과 괴로움에 덜 공감했습니다.

선두에 서는 리더보다, 주변을 조율하는 리더가 훨씬 더 각광받는 시대입니다. 과연 리더만 여기에 해당이 될까요? 인간관계에서도 같은 법칙이 적용됩니다. 주변을 조율하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훨씬 더 대우받는 세상입니다. 과연 우리는 상대방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며 개성을 존중하고 공감하고 있는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1. 여러분은 예수님이 귀신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친구들이 메고 온 중풍병자를 일으키셨다는 내용을 들으면 맨 먼저 무엇이 생각나는지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

2. 본문에 공감 능력(EQ)이 현저하게 떨어진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생각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막 2:23-28)

---

3. 공감 능력은 오늘날과 같이 개인화된 사회와 이기적인 풍토를 가진 사회에서 필요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두기로 공감 능력이 떨어진 시대에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롬 12:15)

---

4. 그 여느 때보다 원만한 소통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정작 타인의 고통에는 진정으로 공감하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창 4:9)

---

5. 한국사회는 극심한 편 가르기로 공감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두 진영으로 갈라져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나뉘면서 상대방의 고통을 보고 쾌락을 느낍니다. 공감 능력을 상실한 사회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6.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다운 모습을 회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

**[적용]** 오늘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 적용하여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 주님, 바리새인들처럼 공감 능력이 낮다 못해 병든 사람처럼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 주님, 우리는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공감 능력을 상실했지만, 그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처럼 되시고, 십자가에서 공감력의 극치를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공감 능력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